

회의적 환경주의자

글_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duckhwan@sogang.ac.kr

정말 놀라운 책이다. 원고지 4천 장에 이르는 본문, 2천930 개의 주, 1천800권의 참고문헌, 173개의 도표, 그리고 8개의 표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과감하고도 도전적인 내용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던 ‘생태주의’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겠다고 작심한 저자의 충격적인 주장들은 놀랍다고 할 수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다. 이 책을 처음 본 것은 작년 1월이었다. 1998년에 덴마크어로 처음 발간되었고, 2001년 9월에 영어판이 발간된 이후로 세계적으로 엄청난 ‘물’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입한 책은 과연 소문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이번에 발간된 번역본의 경우에는 역자들의 훌륭하고 꼼꼼한 번역 솜씨가 유감없이 발휘되었지만, 그래도 이 책을 끝까지 읽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다. 흔히 듣던 이야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역자의 ‘해제’에서 밝혔듯이 덴마크의 젊은 통계학자인 비외른 롬보르는 이 책을 통해서 지난 몇 십년 동안

‘생태주의’라는 매력적인 이름으로 세계를 휩쓸어왔던 환경 비판론에 대해서 공개적인 도전장을 낸 셈이다. 연구비를 확보하려는 과학자, 대중 선동을 목표로 하는 환경운동가, 그리고 마구잡이로 뉴스거리를 찾아 헤매는 언론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절망적인 환경 위기론의 핵심은 현대 과학과 기술이 인류의 삶을 운 좋게 해주었다는 주장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 위기론은 농약과 비료와 같은 유기물질에 의한 수질과 토양 오염, 핵겨울과 산성비,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그리고 유전자 조작과 생명복제 등으로 끝없이 이어져 왔다. 진위나 타당성을 따질 겨를도 없이 거세게 밀어닥치는 위기론의 물살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저자의 주장은 제1부 ‘너무나 뻔뻔한 이야기들’만 읽어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환경 위기론의 허구성에 대한 저자의 날카로운 비판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월드워치나 세계자연보호기금, 그린피스, 피멘텔 교수도 가리지

않는다. 환경 위기론자들의 ‘진실을 경시하는 풍조’는 환경 분야에 대한 일차적인 연구 결과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환경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심각한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전혀 사실 무근인 경우도 없지 않지만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그릇된 통계를 활용하기 때문인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을 지적했던 ‘도둑맞은 미래’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1940년 이후로 환경 호르몬에 의한 유방암의 발병률이 매년 1%씩 증가해왔다는 주장”은 1990년까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가 그 이후로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예는 끝없이 이어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자가 현재의 모든 것이 완벽하고 만족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의주의자가 지나치게 부각되지 않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도전해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정말 어떤 상황에 처해 있



비외른 롬보르 지음, 홍욱희, 김승욱 옮김, 에코리브르, 2003

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특히 회의론자들이 조직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나쁜 소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과 그 미래에 대한 저자의 인식은 분명하게 낙관적이다. 평균 수명과 보건, 식량과 기아 문제, 빈곤과 불평등, 교육과 여가 활용, 재난과 안전 시설 등의 모든 면에서 현대의 인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가장 형편이 나쁜 아프리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주민들의 영양 상태, 소득, 교육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수준은 아니지만, 20세기 초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회의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식량은 계속해서 싸고 풍부해질 것이고, 삼림과 수자원, 에너지와 원자재도 형편이 그리 나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미래에 대한 예측은 ‘예측’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다. 쓰레기 문

제, 화학약품과 생물 다양성, 지구 온난화 등이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의 오염 부담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문제도 경제가 충분히 성장하면 환경도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론은 여전하다. 결국 저자는 우리 모두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힘을 합쳐서 끊임없는 진보를 이룩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흔히 이야기하듯이 지구촌의 자연 환경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유산이다. 목전의 이익만을 위해서 마구 파헤치고 무너뜨린다면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있는 지구촌의 환경은 어느 한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릴 것은 틀림이 없다. 46억 년에 가까운 지구의 역사에서 그런

재앙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은 자연의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오늘날의 상황은 더욱 불안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물론 생태주의를 앞세운 환경 위기론이나 그에 대한 극단적인 반박은 모두 진실이 아닐 것이다. 진실은 그 중간의 어디엔가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을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극단적인 생태주의적 주장에서는 주체가 되어야 할 우리 인간의 위치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롬보르의 역작이 우리 인간이 소외된 생태 만능 주의적 환경 운동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SD**

〈과학독서아카데미 추천 도서〉

1. “인간의 친밀 행동”, 테스몬드 모리스 지음, 박성규 옮김, 지성사, 2003년
2.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 후 50년”, 마이클 머피 외 지음, 이상현·이한음 옮김, 지호, 2003년
3. “과학과 대중이 만날 때”, 브루스 르윈스타인 외 지음, 김동광 옮김, 궁리, 2003년
4.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선언문”, 니콜라 월로재단환경감시위원회 지음, 김선미 옮김, 북갤러리, 2003년
5. “도덕적 동물”, 로버트 라이트 지음, 박영준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3년